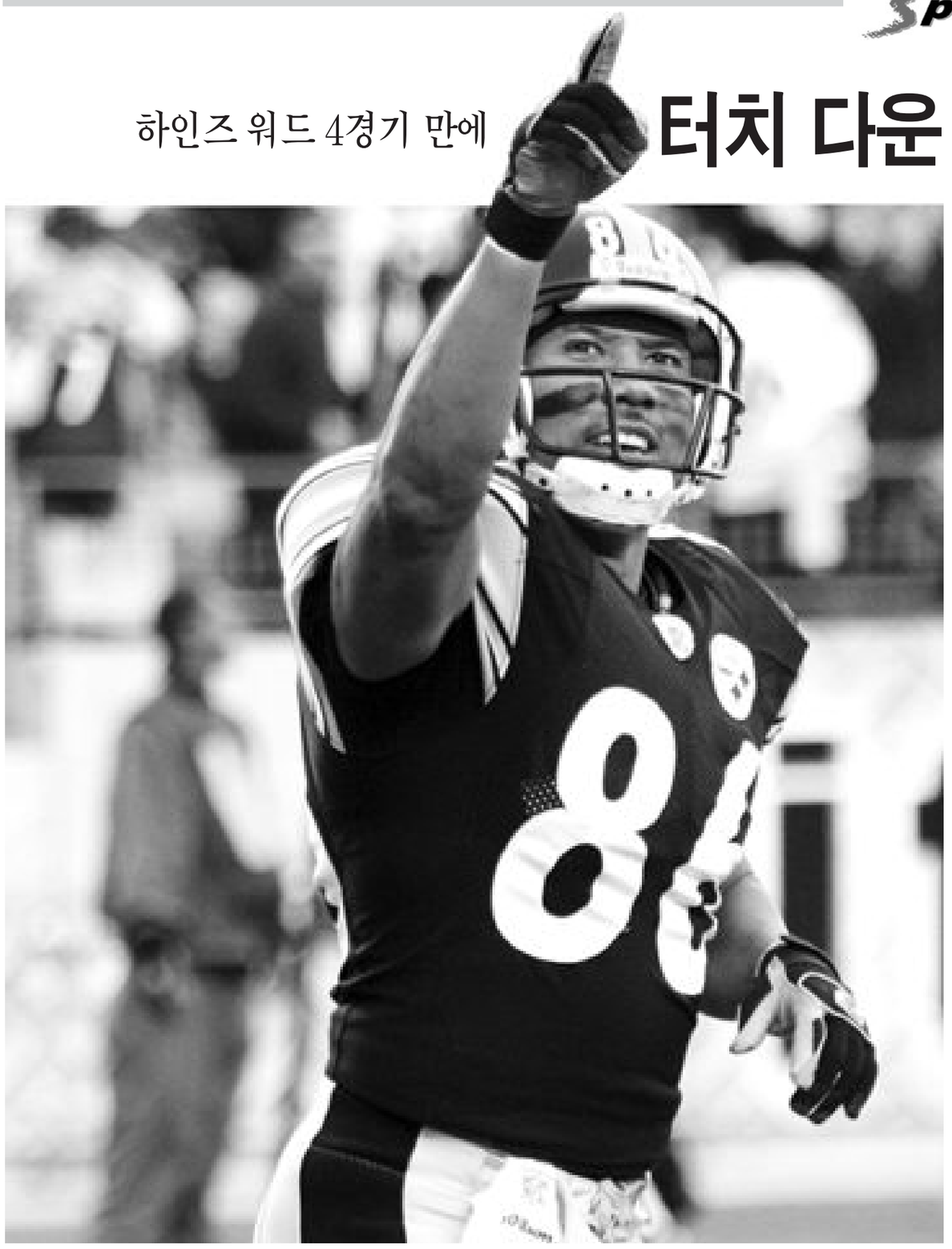
하인즈 워드 4경기 만에 터치 다운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하인즈 워드가 16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하인스 필드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치프스와의 미국프로풋볼(NFL) 정규시즌 6주차 홈경기 2쿼터에서 터치다운에 성공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첼시 자존심 건 한판 승부 바르셀로나

내일부터 조별리그 3라운드 시작

유럽 프로축구 최강 리그의 최강 팀끼리 맞붙는다.

2006~200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라운드가 오는 18일(이하 한국시간)과 19일 일제히 펼쳐지는 가운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지난 시즌 우승팀인 첼시와 바르셀로나가 첼시의 홈구장인 스탬퍼드 브리지 스타디움에서 자존심을 건 맞대결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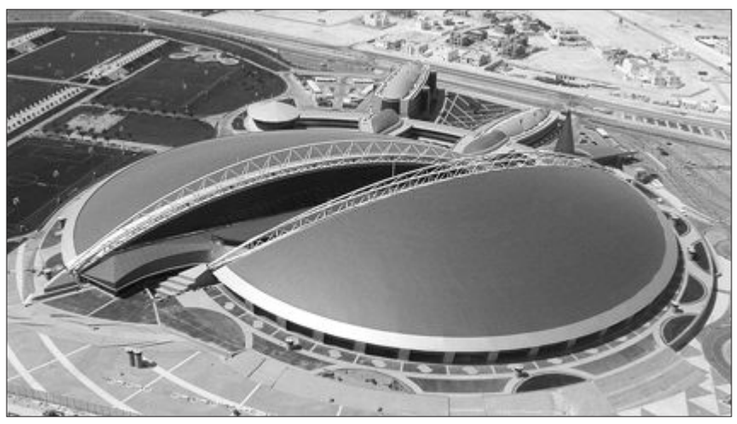
첼시는 안드리 셉첸코와 디디에 드로그바, 프랭크 램퍼드, 아르연 로번 등 특급 공격진과 미드필더진을 앞세워 '설욕전'을 노리고 있지만 지난 주말 설기현(27) 소속팀 레딩과 리그 경기에서 주전 골키퍼인 페트르 체흐가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수술대에 올라 전력에 차질이 예상된다.

바르셀로나로서도 이번 경기는 놓칠 수 없다.

바르셀로나는 독일월드컵 이후 슬럼프에 빠졌던 2년 연속 'UEFA 올해의 선수상'의 주인공 호나우지뉴가 이날 새벽 세비야와 홈경기에서 페널티킥을 포함해 2골을 폭발시키며 화려한 부활을 알렸지만, 사뮈엘 에토오가 브레멘전에서 무릎을 다쳐 최소 2개월간 결장이 불가피한 것이 아쉽다.

도하아시안게임 D-45 ❹ 세계 최대규모 돔 어스파이어

한지붕 아래서 7개 종목 동시 개최



'어스파이어(Aspire)'

영어로 '열망하다'는 뜻을 지닌 이 단어는 제15회 아시안게임 개최지인 카타르 도하의 스포츠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낸 현장이다.

원래 유소년 종합 선수촌 형태의 스포츠 아카데미로 지난 해 11월 문을 연 '어스파이어(Academy for Sports Excellence)'는 29만㎡의 부지에 정식 규격의 축구경기장, 실내 육상트랙, 올림픽 규격의 수영·다이빙 경기장, 7개의 다용도 스포츠 홀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돔 경기장이다.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 부지 면적이 21만6천700㎡인데 실내 경기장이 이보다 7만3천300㎡나 넓다니 가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돔 주변에서 하늘로 솟구친 어스파이어 타워는 높이 300m로 도하 시내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다. 126개의 5성급 호텔 룸도 내부에 자리 잡고 있다.

도하 시내 스포츠시티에 자리잡은 이곳에서는 이번 아시안게임 기간 사이클(트랙), 복싱, 체조, 배드민턴, 레슬링, 카바디, 우슈 등 7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사이클은 축구경기장에 임시로 설치한 벨로드롬에서 진행되고 나머지 6개 종목은 돔 안에 위치한 여러 곳의 다용도 체육관에서 열린다.

'한 지붕' 아래에서 다수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는 것은 종합 스포츠 대회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우다.

도하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백년 체육대계'를 내다보고 공들여 만든 이 곳에서 아시아 최고의 스타들이 기량을 겨룬다는 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어스파이어 홍보를 맡고 있는 호주 출신의 엘리슨 테트는 "한 장의 티켓을 사들고 어스파이어에 들어오는 순간 관객은 한 나절에 7개 종목의 경기를 모두 볼 수 있다"며 이 복합시설의 장점을 설명했다.

프랑스 출신의 건축가 로제 타예베르가 설계한 어스파이어는 반투명 부분 자연 채광을 채택했고 경기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같은 돔 안에서도 칸막이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경기를 진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테트는 부연했다.

어스파이어 운영국의 마일스 머피는 "이 돔 경기장은 카타르 스포츠의 상징이자 아시안게임의 자랑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부풀렸다. 〈끝〉

KIA 마무리 훈련 21일 부터 9일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1일부터 마무리 훈련에 들어간다

KIA선수단은 오는 20일까지 휴식을 취하고 21일부터 29일까지 무등경기장에서 1, 2군 전체 합동훈련에 돌입한다.

훈련은 오전 10시부터 들어가며 4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진행된다.

3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1군은 무등경기장에서, 1.5군과 2군은 남해에 마무리 캠프를 차릴 예정이다.

선수단은 이후 내년 1월초까지 자율훈련에 들어가고, 1월 4일부터 동계 합동훈련을 가진 뒤 같은달 중하순께 일본 미야자키로 전지훈련을 떠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서울·인천·울산 "PO티켓 한장은 내 것"

서울, 인천, 울산이 프로축구 4강 플레이오프 티켓 한 장을 놓고 치열한 막판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

지난 주말 K-리그 후반기 9라운드까지 소화한 결과 '강릉 특훈'의 효과를 등에 업고 성남 일화를 세 골차로 완파한 수원 삼성이 승점 20 고지에 올라 2위 그룹과 '5' 차이로 간격을 벌리면서 후기리그 우승에 성큼 다가섰다.

올 시즌 K-리그 챔피언 결정 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후기 우승팀과 이들을 제외한 전·후기 통합순위 상위·차상위 팀이 다음 달 11일 4강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를 벌인 뒤 11월19일과 26일 홈 앤드 어웨이로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는 일정이다.

이미 플레이오프행을 확정한 전기리그 우승팀 성남과 후기 선두 수원을 빼면 통합순위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서울, 인천, 울산 등 네 팀이 경합하고 있다.

이제 남은 라운드는 네 경기. 따라서 마지막에 남는 한 장의 4강 티켓을 놓고 서울, 인천, 울산이 벼랑 끝 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중계

17일(화)

▲메이저리그 NL챔피언십시리즈 5차전 〈뉴욕M-세인트루이스〉(09 : 05·Xports)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강원랜드-아이스벅스〉(14 : 00·KBS SKY Sports)

18일(수)

▲06/07 UEFA 챔피언스리그 32강3차전 〈CSKA모스크바-아스날〉(01 : 30·MBC ESPN), 〈맨체스터Utd-코펜하겐〉(01 : 30·MBC ESPN)